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청문회서 '광주 경찰' 지역감정 조장 발언 ... 대한민국이 부글부글

경찰 전체 명예훼손 개탄스럽다

안철수 의원



수준 좀 맞춰주세요 선동질 말고

진중권 교수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김정현 민주 부대변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한 '광주 경찰' 발언(광주일보 20일 3면)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0일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명을 내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 발언은 명백하게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대한민국 경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국정조사위원이 자극적 연사를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실제적 진실을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민주주의 가치들이 훼손되거나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위는 반드시 고쳐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해 조 의원이 탈북자 출신임을 겨냥해, "물입니다. 대한민국 의원이냐, 평양 의원이냐"라고 묻은 뒤, "대한민국에 오셨으면 이곳 수준에 좀 맞춰 주세요. 어디서 북조선식 선동질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광주·전남·전북지역 국회의원 28명은 이날 국회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 의원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 국정조사의 품격을 떨어뜨렸고 13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광주시민의 마음속 상처를 다시금 터뜨리고 말았다"며 "조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전북 2014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진실의 증언을 지역감정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아만적 폭력이자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사죄'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자 광주일보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도대체 국정원 댓글 사건 청문회와 권 전 수사과장을 비롯한 김도 증인이 광주 출신이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이 정도면 어찌 청문회는 지역감정 조장대회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조 의원이 우리 사회에 와 있는 이른바 탈북주민들,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삶을 정착시키려 노력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좋은 메시지가 되길 기대했다"며 "하지만, 조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는 새누리당이 청산해야 할 정치를 고스란히 닮아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속성 진화시켜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등 SNS 상에서 비판이 빚발치고 있다. 이광용 KBS아나운서는 트위터에 통해 "그럼 광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지역감정 조장도 이쯤 되면 막장 중 막장"이라고 질타했다.

이준길 미국 변호사도 "광주 경찰"이라고... 조명철 의원님, 사과하세요"라며 "평양서 온 조의원!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 '박근혜는 구미의 대통령인가?'라고 힐난했고,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장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며 "조명철이 일베임을 인증했군요"라고 꼬집었다.

/지역경기자ikpark@kwangju.co.kr

YLP 참여 북 청소년 오늘 광주에 온다

청소년 3명·인솔자 1명

UN이 개최하는 국제 리더십 프로그램(YLP)에 참여할 북한 청소년들이 21일 광주에 도착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U대회조직위)는 북한 청소년 3명과 인솔자 1명 등 모두 4명의 북한 청소년 대표들이 22일 베이징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이날 오후 6시에 메인 행사장인 호남대학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U대회조직위와 UN이 공동주최하는 YLP는 본분지역이나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을 스포츠개발과 평화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광주에서 처음 개최된다.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북한 청소년을 포함해 아시아 19개국에서 34명이 참여한다.

이들 청소년은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호남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YLP개막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23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오전 10시30분부터 에픽스(EPICS)포럼에

참여한다. 광주유니버시아드의 비전인 환경(Eco), 평화(Peace), 기술(IT), 문화(Culture)와 UN의 새천년 개발목표인 스포츠 발전(Sport Development)의 가치를 표방한 에픽스 포럼은 각 분야의 거장과 세계의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광주유니버시아드와 UNOSDP가 공동 기획한 국제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에픽스 포럼을 지지하며 대학생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공식 환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포럼은 그레이트 멘토인 테글라 톨로프를 비롯해 7명의 연사가 '스포츠 개발(Sport for Development)'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뒤 참가자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YLP참가자들은 오는 24~25일에는 충주에서 열리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 참가하며, 이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출신인 반 총장은 여름 휴가차 22일~27일 방한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막식 등에 참석할 계획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19일 밤 구속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석 구속... 다음 타깃은 전재용

검찰, 전두환 추징금 환수 수사 '박차'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 처음으로 처남 이창석씨가 구속되면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올랐다.

이씨는 전씨의 비자금용 종자돈으로 재산을 불려 이를 전씨 자녀들에게 물려준 '고리'이자 '관리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전씨 처남 재용씨의 사업 파트너 겸 후견인 역할도 해온 터라 재용씨 등 전씨 자녀들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번째 타깃은 누구= 이씨는 1998년 검찰의 5공비리 수사 때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이미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다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첫 구속자가 됐다.

이씨를 구속한 검찰의 다음 목표는 재용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재용씨의 불법행위 여부 파악에 가장 용이한 인물이 이씨라고 보고 수사해왔다.

실제로 이씨의 혐의에는 2006년 오산 양산동 631 등 2필지 1만6500㎡(5천평)와 양산동 산19-60 2필지 26만 4000㎡(8만평)를 재용씨 소유의 삼

원코리아와 비엘에셋에 각각 증여하면서 이를 매도로 허위 신고해 법인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했다는 내용이 있다.

전씨 장남 재국씨와 삼남 재만씨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재국씨는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재산을 도피하고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남 재만씨는 미국에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주택과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와이너리의 매입자금과 관련해 해 출처를 의심받고 있다.

◇오산땅 비자금 유입 규명이 핵심=이씨를 구속한 검찰의 당면 과제는 오산 땅 거래 과정을 둘러싼 비자금 흔적의 규명이다.

전씨의 비자금이 유입된 직접 증거를 찾거나 적어도 비자금 등 불법재산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

이씨는 124억원 상당의 양도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재용씨에게 사실상 땅을 증여하면서도 매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 땅은 이씨의 부친이 매입했지만 자금 원천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씨가 사실상 전씨 소유의 오산 땅을 차명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씨 측과 이씨가 재산분배를 놓고 합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 수사는 오산 땅의 매입 자금 및 경위, 매각과정에 전씨 측의 연루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날은 뜨겁고 풀리는 건 없고...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5가 151-1번지

무안출발 ◆ 장가계직항 전세기 ◆ 10월 8일~11월 15일 매주 화, 금출발

무안/장가계/천문산 4일	실속 959,000~
무안/장가계/천문산 4일	총액 1,059,000~
무안/장가계/천문산 5일	실속 1,019,000~
무안/장가계/천문산 5일	총액 1,109,000~

보통항사항: 유류할증료(96,000), 기사&가이드(400)(제비)23,000원
특전: 전일정시사항(그레이트, 전산및사지, 횡동굴, 천문산, 구곡전도, 조목굴)이성호됨

일본 규슈 온천 여행

어름휴가, 방학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별장으로 GO, GO!!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아미야세 별장 온천즐거기 4일	실속 399,000~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4일	실속 599,000~
규슈, 후쿠인, 벳부, 히타, 아소 +전통료칸 아미야세 온천즐거기 3일	실속 749,000~

항공 특가 9/20~22일
규슈, 기타규슈, 히타, 아소 +전통료칸 아미야세 온천즐거기 4일 ALL포함 599,000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제일의 상업도시 오사카&아름다운 태평양과 환상적인 온천이 어울어진 와카야마!!
오사카&와카야마 ALL포함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등굴온천 4일 999,000~

무안 - 심양전세기 [7/26~9/30 매주 월,수,금]

심양 / 백두산[서퍼] 5일[월]	일금 1,090,000 / 목금 1,190,000
심양/백두산[서퍼/북퍼] 6일[수/금]	일금 1,190,000 / 목금 1,290,000

보통항: 유류세(W86,000), 기사&가이드 팀

9/5 출발 확정!! ALL 포함!! 인천/연길 백두산 4일 1,050,000
보통항: 개인적인 경비, 광주-인천 수송비

무안공항 8월20일~10월 기회 특개(매주금요일)

무안-북경/만리장성 4일	399,000~
무안-북경/만리장성 5일	469,000~
무안-북경/태항산 4일	799,000~
북경 / 태항산 5일	849,000~

보통항사항: 유류세(W80,000/인), 비자피(W23,000/인), 기사&가이드 팀(\$50/인)

국내여행/섬여행

광주-제주도	269,000~
목포-제주도 2박3일	159,000~

보통항: 기사&가이드팀(W10,000), 식사, 유류할증료(W22,000)
보통항: 기사&가이드팀(W10,000), 현지자불관광, 자유식사

씨스타크루즈호 목포-제주(편도) 33,000
*광주출발 목포항 도착 서울버스포함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보통항사항: ALL포함, 정대항숙(2)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다양한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관광진흥법 여행 경비 1번 기준, 여행보증금 가입(배상률: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주차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렌터카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증금 가입 •예약시 계약서(투수)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결제방법: 현금, 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각국 비자카드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